

트럼프 세션, 증시 안갯속

韓, 코스피·수출·경제성장률 ‘비상’... “최악에 대비하라”

트럼프, 韓 ‘최악의 침해국’ 분류
外人, 닷새 내리 코스피 순매도세
반도체 관세조치에 추가급락 우려
尹 파면으로 정치 불확실성은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중국 정부의 맞대응 불러 오면서 글로벌 경제와 증시가 격랑을 예고한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와 아시아 증시 모두 급락했다. 미 월가 일각에서는 “최악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전쟁이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다 주가폭락,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졌던 1930년대 대공황 직전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국내 증시도 예외는 아니다. ‘퍼펙트 스톱’급 대내외 악재로 최악의 경우 코스피 2000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도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안전띠를 단단히 조여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 “최악에 대비하라” 관세전쟁 확산에 세계 금융시장 요동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글로벌 증시가 ‘패닉(공포)’에 빠졌다. 지난 4일(현지 시간) 기준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은 올해 들어 19.28%가량 하락했다. S&P도 13.73%대 추락했다. 코스피는 기저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500만 달러(약 73억 원) 상당의 ‘골드 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과로 3% 가까이 올랐지만, 최근 2460선으로 밀렸다. 일본(-15.33%), 대만(-7.54%)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외환 시장도 휘청였다. 트럼프가 겨는 ‘상호관세’의 창끝이 예상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을 공포로 몰아 넣고 있다.

시장은 갈수록 악화하는 모양새다. 상화관세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트

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 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월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국제무역론 교과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에서 관세전쟁의 결과는 관련된 모든 국가 소비자의 후생(welfare)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현실 속에서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살펴본다면 모든 국가, 적어도 대부분의 국

가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는 매우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이 짐을 싸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양 시장에서 닷새 내리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5조 8625억원의 자금을 순유출했다. 코스닥에서도 6417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지난주 코스피 순매도 규모는 주간 기준으로 지난 2021년 8월 13일(7조262억원) 이후 4년 7개월 여만에 최대치다.

이유 있는 ‘팔자’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 대미 수출의 35%를 자동차가 담당하고, 대중 수출의 50%를 반도체 등 IT 품목이 담당한다. 이 같은 편중된 구조 때문에 ‘상호관세’의 무게는 다른 국가보다 더 무겁다.

◆ 게임들 “최악에 대비하라”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국이 미국을 상대로 맞불을 놓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내 경제가 반동할 만한 요인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그나마 호재다.

가장 큰 악재는 악화할 대로 악화한 국제 경제다. 잘하던 분야는 죄다 중

국 등에 추월당했고, 첨단 분야는 멀찍이 뒤처졌다. 영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내렸으며, 바클리(Barclays)는 1.6%에서 1.4%, HSBC는 1.7%에서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S&P의 경우 한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2%로 무려 0.8%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데 따라 국내 반도체주의 추가 급락 우려도 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외국인 수급 개선을 위해선 4월 중 미국 경기 침체 우려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지수 탄력이 둔화한 가운데 중국형 엔터·게임·소비재 등 위주로 종목 장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가 효과적으로 제거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경기침체 우려에 무너져내리는 ‘美 기술주 ETF’

美 상호관세·中 보복관세에 격랑
매그니피센트7 종목 줄줄이 급락
“부정적 영향 미치는 정책 대한 반응”

“보잘것없던 제좌에 한 줄기 희망이었는데, 이제 버려야 할 것 같네요.”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전쟁과 그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우려 등이 미국 주식 시장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국내의 시장에서 미 증시에 투자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들 서학개미(미국 증시관련 주식 및

상품 투자자)는 작년 내내 보통의 동학 개미(국내 주식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 테슬라·엔비디아·애플·알파벳 등 급성장하는 테크주를 골라 몰빵한 덕분이다. 그러나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그간 급성장한 테크주가 가장 빠르게 무너졌고, 그간의 과실도 금세 빛이 바래고 있다.

6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

수를 2배로 추종하는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는 약 33% 하락했다. ‘PLUS 미국테크TOP 10레버리지(합성)’는 25% 가까이 떨어졌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25.47%)와 ‘TIGER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합성)’(-22.89%)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잠 못 드는 서학개미들도 급증하고 있다. 과감히 베팅했던 ‘기술주’가 급락하고 있어서다. 추가 손실도 예고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이은 중국 정부의 맞대응 보복

관세 발표로 글로벌 경제와 증시가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팬데믹 충격이 닦인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5.50% 급락했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5.97% 떨어졌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5.82%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16일 고점 이후 20% 넘게 하락하며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12월 4일 고점 대비 15% 빠지며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최근 뉴욕증시 부진은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 때문이다. ‘매그니피센트7(M7)’으로 불리는 주요 종목들 가운데 애플은 약 21% 하락했고, 메타(-22.95%), 엔비디아(-17.31%) 등도 줄줄이 급락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올해 1분기 미 증시 순매수액은 113억2176만달러에 달했다.

앤젤레스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로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가 관세와 무역 정책을 쉽게 포기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 하락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나쁘고 일관성 없는 무역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동남아 흔드는 ‘고율관세’... 삼성·LG 등 전자업계 직격탄

주요 생산기지도도 고율관세 부과
스마트폰 부문 관세 영향 직접적
관세 낮은 도로 고객사 이탈 가능성

미국이 오는 9일부터 베트남(46%), 중국(34%)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최대 49%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삼성전자·삼성전기, LG전자·LG이노텍 등 주요 전자 기업들은 동남아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관세 직격탄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수입품 전반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25%)을 포함한 60여 개국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 국내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도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원가 절감을 꾀했던 한국 기업들은 생산 전략의 대대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은 타격이 불가피

하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애플의 로비로 스마트폰은 대중국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예외 없이 포함됐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중국, 한국,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되는 만큼 관세 영향은 직접적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연간 1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이 중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된다. LG전자 역시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LG전자

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 계열사는 총 12개 법인을 운영 중이며, 특히 베트남 하이퐁에 대규모 가전 제품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다.

전자 부품업체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관세 부담과 함께 고객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삼성전기는 베트남에서 첨단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불그리드 어레이(FC-BGA)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 AMD에 공급할 FC-BGA 양산에도 착수했다. 다만 상호관세로 신규 고객들이 베트남 물량을 받는 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추가 수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G이노텍은 하이퐁 공장에서 생산한 카메라 모듈을 중국 폭스콘을 거쳐 애플에 공급하고 있다. 애플은 전 세계 아이폰 판매량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이번 관세로 중국산 제품에 기존 20%의 관세에 추가로 34%가 더해져 총 54%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현재보다 30~4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가 낮은 일본(24%) 등으로 고객사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C-BGA 시장의 강자인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는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이혜민 기자 hyem@